

1. 지하철 유독가스 대피 현장훈련 계획

(서대문구)

운영 중인 지하철에서 유독가스가 살포될 경우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신속한 현장응급의료소 현장훈련을 실시 하고자 함

□ 훈련개요

- 일시/장소 : 5.18(월) 03:30~05:00/ 경복궁역~독립문역(3호선)
 - 국민안전처 장관 등 200여명 훈련참여(승객, 부상자 등 역할부여)
- 주관기관 : 국민안전처, 서울메트로
- 참여기관 : 서대문구청·소방서·보건소·경찰서 및 56사단 등
- 훈련내용 : 지하철 운행중 유독가스 살포에 따른 대피 훈련

□ 훈련내용

< 상황설정 >

- 지하철3호선 대화행열차가 경복궁역을 출발 운행중 독립문역 전방 200m 지점에서 신원미상의 승객이 유독가스로 추정되는 가스 살포로 다수승객 호흡곤란
- 승무원·역무원 초동대응, 관제센터의 신속한 상황전파
- 신속한 승객대피 유도, 사상자 구급·제독 등 실제상황 숙달 훈련

□ 현장응급의료소 설치·운영(설치소장 : 보건소장)

- 분류반 : 재난현장에서 발생한 사상자를 검진하여 응급처치표를 작성하고 사상자를 4단계 분류함
- 응급처치반 : 긴급·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
- 이송반 : 각 의료기관과 긴밀한 연락체계를 유지하면서 분류반 및 응급처치반이 인계한 사상자를 이송함